

책으로 세상을 읽다

오늘의 한국 사회를 만든 아홉 가지 역사적 대논쟁

「대논쟁 한국사」

글. 이하민 북칼럼니스트 / 前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문상상프로젝트 기자



「대논쟁 한국사」, 김종성 지음

이번 서평에서는 지금까지 다뤘던 사회 과학 도서가 아닌 역사책으로 써보고자 한다. ‘월간 방송과기술’에 글을 쓰기 시작한 이후로, 한 번쯤 역사서에 관한 서평을 쓰고 싶었다. 생각해 보면 역사도 과거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밝혀 놓은 것이다. 현대 사회상을 통해 깨우칠 수 있는 점도 많지만, 과거 사회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은 더 많다. 이미 지난 일을 좀 더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과거사에 관한 수많은 학자의 이론과 평가도 축적되어 왔다. 그래서 역사 공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만, 필자는 기존 역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책을 찾고 싶었다. 그러던 중 서점에서 눈에 띄는 제목을 발견했다. ‘대논쟁 한국사’였다. 우리는 보통 역사를 시대의 흐름이나 왕조의 창업과 멸망을 기준으로 배운다. 즉 시간 순서에 따라 삼국시대, 고려시대 혹은 고대, 중세, 근대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논쟁 한국사의 저자인 김종성 박사는 여기에 새로운

기준을 추가했다. 바로 한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아홉 가지 대논쟁을 기준으로 한 분류다.

저자는 대논쟁을 이렇게 정의했다. ‘당대 혹은 후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당대의 지배층과 사회 세력이 대거 격돌한 사건’이다. 대논쟁은 그 시대의 내부 문제나 모순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그래서 대논쟁을 중심으로 역사를 살펴보면 사회 구조와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또한 논쟁의 승자를 중심으로 사회질서가 바뀌기 때문에, 왕조 교체를 기준으로 역사를 공부할 때와 다른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국외 요인의 변동으로 촉발된 대논쟁

저자에 따르면 한반도 역사를 움직인 대논쟁은 몇 가지 특정한 패턴이 있다. 먼저 국가 외부 요인에 의해 대논쟁이 촉발되었다는 점이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첫 번째 대논쟁부터 그랬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고조선(위만조선)은 중국 통



기원전 109년 위만조선을 침공한 한 무제. 한나라의 침략으로 인해 한반도의 첫 번째 대논쟁이 일어나게 된다



살수대첩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을지문덕은 고구려 대논쟁 시기 대표적인 서진파였다. 사진은 살수대첩 당시 모습을 각색한 그림 / 출처: 네이버 포스트

일 왕조인 한나라의 침략을 받았다. 당시 위만 왕실과 토착 귀족 세력 간에 한나라와 화친 여부를 놓고 대논쟁이 벌어졌다. 그때 왕실은 항전을, 토착 세력은 화친을 주장했다. 결과는 토착 세력의 승리로 끝났다. 이는 한반도에 중국 왕조의 지배력이 개입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책은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을 제시한다. 바로 중국 출신의 위만 왕실이 항전을 주장한 것과 한민족 출신인 토착 세력이 화친을 주장한 점이다. 일반 상식으로는 당연히 토착 세력이 이민족인 중국과의 화친을 반대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저자는 권력 역학이 명분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당시 화친은 고조선의 지배 세력이 한나라 정권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했다. 이 때문에 위만 왕족은 지배 권력이 교체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반면 토착 귀족 세력은 왕실이 바뀌어도 지방에 대한 자신들의 기득권만 유지하면 되었다. 그래서 한나라와 타협코자 한 것이다. 이처럼 국가의 대논쟁은 지배 세

력의 이해관계 및 권력 역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위만조선 이후에도 한반도는 오랜 세월 동안 외부 세력의 침입을 받았다. 이에 따라 수많은 대논쟁이 발생했다. 7세기 후반 중국 수나라와 당나라는 고구려 침략을 단행했다. 이에 고구려는 기존 남진 정책을 고수할 것이냐, 혹은 중국과 맞서 적극적인 서진, 즉 중국 본토로 진출할 것이냐를 두고 격렬히 논쟁했다. 남진 정책은 5세기 장수왕이 추진한 것으로 한반도 남쪽으로 영토 확장의 방향을 선회한 정책이었다. 이는 당시 북방 유목민 왕조인 북위가 북중국을 통일하면서 광개토태왕의 서진 정책을 더 추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후 수, 당이 고구려를 침공하면서 서진 남진 논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은 것이다. 이 논쟁은 을지문덕 시기, 연개소문 시기 두 차례 발생했는데 전자의 경우 남진, 후자는 서진 세력이 승리했다.

해당 논쟁은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해 한

민족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논쟁이었다. 서진을 주장한 연개소문이 정권을 장악하여 고구려는 백제와 동맹을 맺고 중국 본토 진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의 사후 고구려, 백제가 차례대로 멸망하며 수포가 되고 말았다. 이후 한민족 국가에서 서진주의 세력이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서진주의 세력은 세월이 훌쩍 넘은 12세기에 다시 등장했다. 고려 시대 서경 천도를 주장했던 묘청과 그의 조력자들이었다. 우리에게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당시 고려는 묘청의 서경파와 김부식을 대표로 한 개경파 세력이 강하게 맞붙었다. 이 논쟁 역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촉발됐다. 12세기 초는 여진족이 요나라와 북송을 차례대로 멸망시키고 동아시아 최강국 반열에 오른 시기였다. 저자는 이것이 과거 여진족을 지배한 고구려의 수도였던 서경(평양) 주민들을 자극했다고 설명했다. 한때 자신들 밑에 있던 소수 민족이 중원 대륙



서경 천도를 두고 논쟁을 펼쳤던 묘청과 김부식

을 제패해버렸으니 그럴 만도 했다. 왕건의 북진 정책으로 평양 주민들의 마음에 싹튼 북진의 불씨는 여진족이 중국을 장악하자 활활 타올랐다.

묘청은 평양 주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강력하게 서경 천도를 주장했다. 대륙 진출을 위해 수도를 북쪽으로 옮겨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다수 귀족과 관료들이 천도를 반대했다. 개경에 기반을 둔 중앙 귀족들의 입장에서는 천도가 곧 자신들의 기득권 약화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결국 서경파와 개경파의 대논쟁은 개경 세력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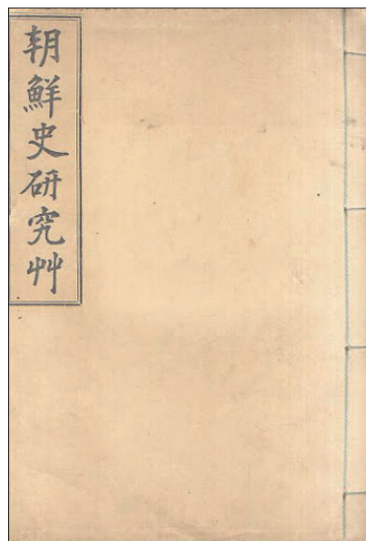
저자는 역사학자 신채호의 저서 <조선사연구초>를 들어 해당 논쟁이 향후 1000년의 한반도 역사를 결정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묘청의 패배 이후, 한민족은 대륙 진출의 꿈을 버리고 중국에 종속, 사대하는 정신을 표방하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논쟁 이후 한반도에서 북벌을 기치로 내건 세력은 나오지 않았다.

앞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 저자는 과거 한민족이 대륙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직접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신채호 등 역사학자의 말을 빌려 은연중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쟁 외에도 책을 읽다 보면 저자의 의견이나 주관을 볼 수 있는 대목을 발견하게 된다. 다른 예로 마지막 대논쟁인 신탁통치 논쟁 편에서 저자는 이승만의 독립운동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만약 독자 여러분이 저자와 생각이 같다면 공감을 하거나, 다르다면 비판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역사책이 주관적이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독자도 있겠다. 그러나 약간의 의견 제시는 독자들로 하여금 좀 더 풍부한 사유를 끌어내는 장점도 있다.

유지하려는 자와 변화하려는 자의 대결

한국사 대논쟁의 또 다른 패턴은 현상 유지를 원하는 쪽과 개혁과 혁신을 주장하는 쪽이 맞붙었다는 점이다. 저자는 고려 초 광종의 과거제 개혁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광종은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제를 시행코자 했다. 과거제는 신분에 상관없이 능력만 있으면 시험을 통해 누구나 조정 요직에 오를 수 있는 제도였다. 이는 한민족 역사에서 실력을 통해 인재를 선발한 최초의 사례였다. 광종이 이 제도를 처음 제시했을 때 당연히 신하들의 반발이 심했다. 호족들 입장에서는 귀족 출신으로 관료가 구성되어야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용이했기 때문이다. 반면 군주는 자신이 원하는 인재를 시험을 통해 선발함으로써 권력을 강화해야 했다.

호족들의 강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광종



단재 신채호와 그의 저서 <조선사연구초> / 출처 : 위키피디아(왼쪽)

은 지혜롭게 과거제를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현상 유지를 위한 호족과 과거제 개혁을 추진한 광종과의 대논쟁은 후자의 승리로 끝났다. 이 논쟁 이후 고려의 왕권은 한층 안정될 수 있었고, 문신을 우대하는 사조가 생겨 고려의 핵심 지배층인 ‘문벌 귀족’이 탄생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지점은 군주와 귀족의 관계에 따른 권력 구조의 향배다. 고려는 지방 호족들의 도움으로 세워진 나라였다. 그래서 저자는 고려의 왕권이 조선에 비해 약했다고 설명했다. 국정 운영에서 호족 및 귀족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의 저서 <군주론>에도 비슷한 대목이 나온다. 마키아벨리 역시 “귀족들의 지지로 지배권을 획득한 군주는 지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한다.



**대논쟁은 그 시대의
내부 문제나 모순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그래서 대논쟁을
중심으로 역사를
살피면 사회 구조와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스스로 군주와 동등시하는 귀족들에 둘러싸여 군주가 마음대로 통치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민생을 위한 정책을 펴는 데도 지장이 생기게 된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권력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영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된다.

조선 말 서양 세력의 침입을 두고 위정척사론과 동도서기론이 대립한 논쟁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위정척사파는 서양의 문물은 모조리 배척해야 자국의 사상과 문화를 지켜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화를 주장한 세력은 ‘동도서기론’이라는 사상을 내세웠다. 동양의 도, 즉 유교를 기반한 체제는 유지하되, 서양의 기술과 제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고종이 동도서기론을 채택하면서 개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긴 했으나,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 근본적인 체제 개혁



대표적 위정척사파인 이항로는 미국 선박이 대동강을 침입한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척사론을 내세웠다.
/ 출처 : 위키미디어(오른쪽)



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전이 더디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조선은 강대국의 지속적인 압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패망의 길을 걷게 된다.

그 외에도 한반도 대논쟁은 논쟁이 지난 뒤 국가의 명멸이 일어났다는 특징이 있었다. 위만조선 왕실과 토착 세력과의 논쟁 뒤에 위만조선이 없어지고, 한나라가 들어왔다. 또 7세기 서진과 남진을 두고 논쟁한 고구려 역시 멸망했다. 19세기 서양 침입을 두고 벌인 개화 논쟁 뒤에도 조선이 멸망했다. 반면 신탁 통치 논쟁에서는 반탁파의 주도로 대한민국이 수립됐다. 이는 대논쟁이 한 나라의 체제를 뒤흔들 만큼 파괴적인 힘을 발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대논쟁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책에서 제시한 대논쟁의 사례 중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았다. 서평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신선교와 불교 논쟁’, ‘이기론 논쟁’ 등 흥미로운 대논쟁 사례가 많이 있다.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부분 중 하나는 대논쟁과 관련된 배경, 인물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묘청의 서경파와 김부식의 개경파가 맞붙기 이전에 고려 권신인 이자겸의 난이 영향을 미쳤음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인종은 당시 수도 개경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것이 대논쟁을 촉발하는 하나의 원인이었다. 인종이 이런 심리를 갖게 된 배경에 이자겸이 개경에서 일으킨 반란이 있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자겸의 난에서 인종의 심리 상태까지 흥미로운 서사로 이야기하고 있다. 덕분에 많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읽는 데 지루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동시에

대논쟁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학교 역사 시간에 배우지 못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접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다. 우리는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에서 큰 공을 세웠다는 사실은 익히 배워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후 을지문덕이 역사에서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알지 못한다. 책은 이 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역시 당시 고구려에서 일어난 서진 및 남진 논쟁과 관련이 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지만, 동시에 잘 알지 못하는 역사의 뒷 이야기들을 많이 배울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흥미를 가져다주는 반면, 동시에 의문을 품게 만들기도 했다. 저자는 <조선상고사>, <삼국유사>, <삼국사기>, <제왕운기> 등 다양한 사료를 근거로 한국사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제시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한국사 교과서는 고조선의 역사가 크게 단군조선 → 기자조선 → 위만조선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책에서는 이들 세 왕조가 동시에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약 12년간 철저히 제도권 교육을 받은 독자들에게 이런 사실들이 낯설게 다가올 수 있다. 필자도 그랬다. 흥미롭지만, 동시에 이게 과연 진실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가 이런 사실들이 교과서에 등재되지 않은 이유를 덧붙였다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대논쟁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날 대논쟁을 바라보게 된다. 아마 저

자가 책을 통해 의도하는 바도 이와 비슷하리라 생각한다.

현재 우리 사회 앞에 놓인 대논쟁은 무엇인가? 경제 분야에서 성장과 분배 논쟁, 대북 정책에서 협력과 압박 논쟁 등을 떠올리는 독자들도 있을 것 같다. 여러 이슈가 많으므로 한 가지를 뽑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현대의 대논쟁은 과거처럼 양자택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대논쟁 한국사’에서는 모두 양자택일로 이루어진 논쟁들을 소개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졌고 하나의 쟁점에도 수많은 이해관계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양극단으로 사안을 가르는 논쟁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책에서 언급한 한반도 대논쟁의 주요 패턴은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할 전망이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국을 둘러싼 외부 요인이 존재하고 수구와 보수, 진보를 지향하는 세력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향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싶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길 권한다. 역사와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